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7.24.)

제 재	★◎담당	팀장											
	07/29	07/30											
	문지희	박선화											

회의일시	2024.07.24.(수) 13:30	회의장소	정곡관 2층 TIM교육훈련실
------	----------------------	------	-----------------

회의소집 통보일	2024.07.15.(월)	작성 자	문지희
-------------	----------------	------	-----

참석인원 현황 및 서명(11명)	의장	부의장	교원 평의원				외부 평의원			직원 평의원	조교 평의원	학생 평의원	
		박선화	최영임	김미영	박정섭	백승은	이호근	문희태	안승권	한건환	이우준	송성환	김응찬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안건명	[제2024-3-1호] 학칙 개정 심의(안) [제2024-3-2호] 2022~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자문(안) [제2024-3-3호] 2024학년도 학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자문(안)
-----	--

회의 결과

- [제2024-3-1호] 학칙 개정 심의(안) ----- **원안대로 심의함**
- [제2024-3-2호] 2022~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자문(안)----- **원안대로 자문함**
- [제2024-3-3호] 2024학년도 학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자문(안)----- **원안대로 자문함**

회의 내용

가. 성원보고

(간사 문지희) 재적의원 13분 중 총 12분이 참석하시어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 개회선언

(의장 박선화)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가 개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 회의진행

(의장 박선화) 제2024-3-1호 안건은 “학칙 개정(안)” 심의입니다.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의 안건 발의 후, 김영훈 교무팀장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장 박선화) 지금까지 학칙 개정(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 안건이 올라온 시기를 살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지난 과거를 보았을 때 심의가 올라오는 시기는 3~4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배석 김영훈) 학과 구조조정이 3월 26일 제2차 대학평의원회 이후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되기까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7일 이상 구성원들에게 공지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 박선화) 과거에도 똑같이 학과 구조조정을 거쳤고 대학평의원회에서 계속적으로 3~4월 중 학칙 개정 심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특히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학칙 개정 심의가 학과 구조조정 이후 4월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석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선화)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전체 의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는데 동의·재청합니다.

(의장 박선화) 의안번호 제2024-3-1호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7.24.)

(의장 박선화) 제2024-3-2호 안건은 “2022~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안)” 자문입니다.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의 안건 발의 후, 김일진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원 백승은) 만약 내년에 뿌리산업이 바로 실행이 되는데 교육과정을 내년에 개설한다면 우리는 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일텐데요?

(배석 김일진) 실적의 기준으로 전공을 포함한 교과목에 퍼센티지가 충분하고 관련 학과이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년 11~12월 중 교육과정 개발·개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10개가 넘는 교과목을 추가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에 실행한다고 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승권) 신입생 총원율이나 재학생 유지율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을까요? 교과과정이 개설될 때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원대비 교과과정의 효과성을 알기 위해 정량적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함께 보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배석 김일진) 베트남 유학생을 전공 교과목 필수로 두게 되면 이 학생들을 유지해서 졸업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학과의 입장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예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학과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의원 안승권) 교과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꾼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재정 투입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적립금을 계속 쓰고 있는데 강좌를 늘리는 것이 맞는 판단인가 싶습니다.

(의장 박선화) 용접과 같은 교과목을 기존에는 정밀기계공학과에서 하지 않았던 교과목이고 실습의 경우 용접실이 구비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과 내부적으로 비용이 총당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총당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정밀기계공학과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들도 있는데 특정 학과에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러한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석 김일진) 올해 당장은 많은 교과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교육과정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학과의 결정사항이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단지 교육과정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문희태) 정밀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여러과목이 한꺼번에 요청이 올라왔는데 학과에서도 필요에 의해 요청을 한 것이고, 내년에도 여러과목을 한꺼번에 신청을 한다면 또 부담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서류상으로 준비가 되거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일부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차후에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배석 김일진)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시면 1차적으로 일부 교과목을 전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결이 되었고, 용접 및 뿌리산업과 관련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무리해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장 박선화)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전체 의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자문하는데 동의·재청합니다.

(의장 박선화) 의안번호 제2024-3-2호 2022~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안)은 원안대로 자문하였습니다.

(의장 박선화) 제2024-3-3호 안건은 “2024학년도 학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입니다.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의 안건 발의 후, 김병민 예산팀장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원 안승권) 적립금으로만 추경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소진이 될텐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보완을 할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석 김병민) 2022학년도에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서 신규사업 진입이라던지 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립금을 활용하고 있고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승권) 정부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TFT를 구성하거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등에 대한 노력이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배석 김병민) 저희가 9월부터 RISE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TFT를 구성하여 현재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7.24.)

있습니다. 혹시나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잡아놓았고, 이중 일부는 대학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의장 박선화) 추가적으로 RISE 사업을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한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김미영) 저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로는 우리 대학이 정말 몇 년 이내에는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이사회에 올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추상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명백하게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석 이태근)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신입생 총원율을 높이는 것이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이 풀리고 내년부터 RISE 사업과 교육부의 선지원후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20~3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김미영) 신입생 총원율을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지원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투자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입생 총원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의원 안승권) 학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대안들을 학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송성환)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처에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습니다. 특히 입시율에 관한 것은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하는 부분 같습니다.

(의원 이호근) 이 자리에서 기획처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세부계획 없이 이사회에 올라갔을 때 부결될 수 있으니 준비의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서 급여를 전체 예산에 맞춰 삭감하여 일부 적정인원 이상의 신입생을 확보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2~3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송성환)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선화)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완하신다면 근거자료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전체 의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자문하는데 동의·재청합니다.

(의장 박선화) 의안번호 제2024-3-3호 2024학년도 학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자문하였습니다.

라. 폐회선언

(의장 박선화)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 불임 1. 2024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참석현황 1부.
2. 대학평의원회 외부평의원 수당지급 계좌 및 참석확인 1부.
3. 회의개최 관련문서 1부. 끝.